

#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2020. 6

동향분석실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Executive Summary

2019년 말 회복 조짐을 보이던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속하게 둔화되었다. 각국이 유례없는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나 빠른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경기 둔화와 교역 감소에 의한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0.2%로 전망하였으나, 여러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에 따라 경제의 성장 경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보험산업의 경영환경도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 둔화, 초저금리,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은 수입보험료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성장을 위한 보험산업의 경쟁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코로나19에 의한 가계경제의 위축이 하반기에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망을 하였다. 2020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생명보험: -1.8%, 손해보험: 5.2%).

2020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가 전망된다. 보장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와 종신보험 시장 정체 등으로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저금리와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부담 등으로 4.9% 감소가 전망된다. 한편, 변액저축성보험은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8.2% 감소가 예상된다.

2020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이 고르게 성장하여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4.9% 성장이 예상된다. 개인연금은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7.2% 감소가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8.9%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으로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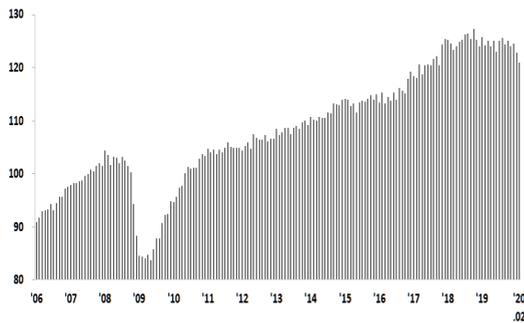
# I 경제·금융시장

## 1. 세계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였던 세계 교역량은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됨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2019년 수준의 교역량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급감하였던 세계 교역량은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약 3년이 걸렸음
-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량 감소의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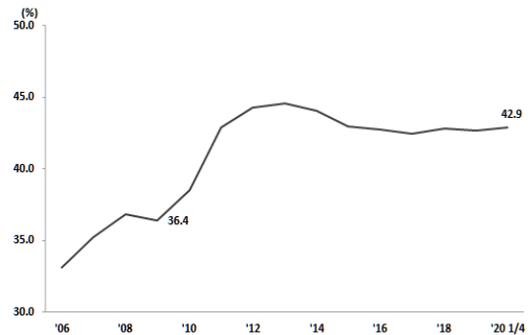
▶ 그림 I-1 세계 교역량 추이



주: 2010년이 100인 지수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0. 4)

▶ 그림 I-2 우리나라 수출의존도



주: 수출의존도=수출/GDP

자료: 한국은행

■ 교역량 감소와 더불어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은 하락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2020년 1/4분기 주요국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18년보다 0.9%p 하락한 2.9%를 기록함<sup>1)</sup>

1) IMF(2020. 4), "World Economic Outlook"

- 2020년 1/4분기 미국, 중국,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4.8%, -6.8%, -3.8%, -3.4%를 기록함

▶ 표 I-1 세계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4
세계	3.6	3.4	3.4	3.8	3.8	2.9	-
선진국	2.1	2.3	1.7	2.4	2.4	1.7	-
신흥국	4.7	4.3	4.6	4.8	4.8	3.7	-
미국	2.5	2.9	1.6	2.4	2.9	2.3	-4.8
중국	7.3	6.9	6.7	6.8	6.4	6.1	-6.8
유로지역	1.4	2.1	1.9	2.5	1.9	1.2	-3.8
일본	0.2	0.6	1.0	1.4	1.4	0.7	-3.4

주: 1)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2)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연율화한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나,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IMF(2020. 4), "World Economic Outlook"; U.S. Department of Commerce(2020. 4); 중국 국가통계국(2020. 4); Eurostat(2020. 5); 일본 내각부(2020. 5)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및 경제활동 둔화로 인하여 IMF는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해 사회·경제 활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0%로 6.4%p 하향 조정함<sup>2)</sup>

▶ 표 I-2 2020년 IMF 세계경제 전망

(단위: %)

전망기관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지역	일본	중국
IMF	2019. 10	3.4	1.7	4.6	2.1	1.4	0.5	5.8
	2020. 4	-3.0	-6.1	-1.0	-5.9	-7.5	-5.2	1.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 IMF(2020. 4), "World Economic Outlook"

## 2. 국내경제

■ 2020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이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대폭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침

- 2019년 1.9%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0년 1/4분기 -4.7%를 기록함

▶ 표 I-3 지출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GDP	2.7	1.7	2.0	2.0	2.3	2.0	1.3
- 민간소비	2.8	1.9	2.0	1.8	1.9	1.9	-4.7
- 설비투자	-2.4	-17.4	-7.0	-2.7	-2.5	-7.7	7.5
- 건설투자	-4.3	-7.2	-3.5	-3.7	1.1	-3.1	3.4
- 지식생산물투자	2.2	2.9	2.7	2.5	2.5	2.7	2.3
- 재화수출	3.5	-0.2	1.2	1.8	3.7	1.7	4.9
- 재화수입	0.8	-5.1	0.0	2.3	1.2	-0.4	0.5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코로나19 확산 이후 민간소비심리와 건설수주가 급격히 악화되어, 향후 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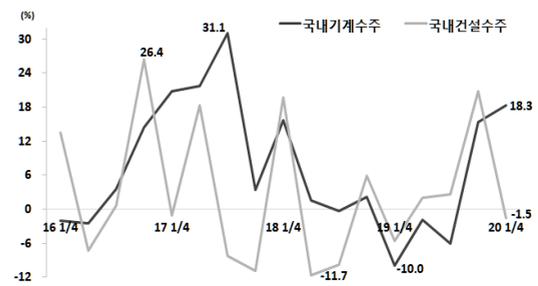
- 2020년 1월 104.2였던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70.8로 급격히 악화된 이후 5월에 소폭 회복한 77.6을 기록함
- 회복세였던 건설수주가 2020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였음

▶ 그림 I-3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4 기계수주<sup>1)</sup>, 건설수주<sup>2)</sup> 증가율



주: 1) 선박 제외함  
2) 경상임  
자료: 통계청

■ 국내 주요 기관들은 2020년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약 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2020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2%, 0.2%로 예측함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 수출 감소, 건설투자 악화, 고용 악화 등으로 국내경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두 기관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경제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함

▶ 표 I-4 국내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F) <sup>1)</sup>	
			한국은행 <sup>2)</sup>	KDI <sup>3)</sup>
실질GDP	2.7	2.0	-0.2	0.2
민간소비	2.8	1.9	-1.4	-2.0
설비투자	-1.6	-7.7	1.5	0.9
건설투자	-4.0	-3.1	-2.2	1.4
지식생산물투자	1.9	2.7	2.2	2.7
상품수출	4.0	0.5	-2.1	-1.7
상품수입	1.9	-0.8	-0.2	-1.1
실업률	3.8	3.8	4.0	3.9
소비자물가	1.5	0.4	0.3	0.4
경상수지(억 달러)	764	600	570	594
상품수지(억 달러)	1,119	769	715	778
서비스·본원·이전소득 수지(억 달러)	-355	-169	-175	-184

주: 1) 2020(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0. 5),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0. 5), 「KDI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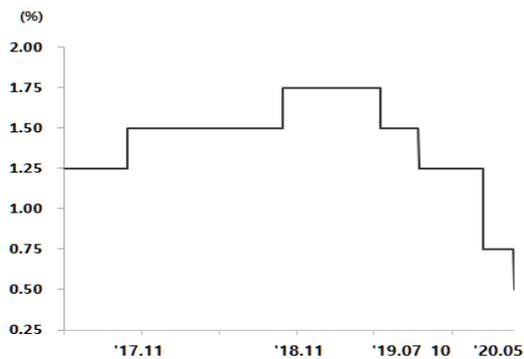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KDI

### 3. 국내금융시장

#### 가.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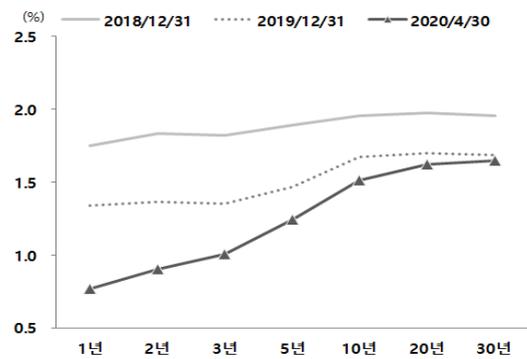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0년 3월 0.5%p 인하한 데 이어 5월 0.25%p 인하하여,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0.5%가 됨
  - 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함
  - 5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여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밝힘
- 국내외 완화적 통화정책과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단기 국채금리는 대폭 하락한 반면, 장기 국채금리는 국채 발행 확대 계획으로 소폭 하락함
  -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 매입,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sup>3)</sup> 등 시장안정화 조치로 인해 단기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당분간 통화정책의 기대로 금리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sup>4)</sup>
  - 1·2차 추가경정예산(90조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3조 원 내외) 등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의한 국채 발행 확대 기대로 장기물 금리의 하락이 미미함
    -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 확대에 의해 국채금리의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계획을 밝힘

▶ **그림 I-5** 한국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 **그림 I-6** 한국 국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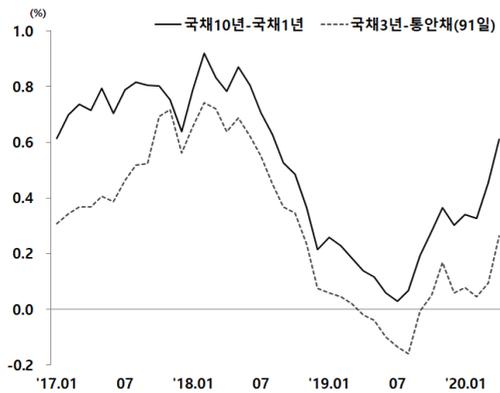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3) 정부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매주 1회 91일 만기의 정례 RP 매입을 실시하며, 일정금리수준(기준금리+10bp)하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유동성을 전액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이베스트투자증권)  
 4)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0. 5. 8), 「금리: 디스플레이션 논란, 금리 인하 배경 될까?」,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0호

☐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단기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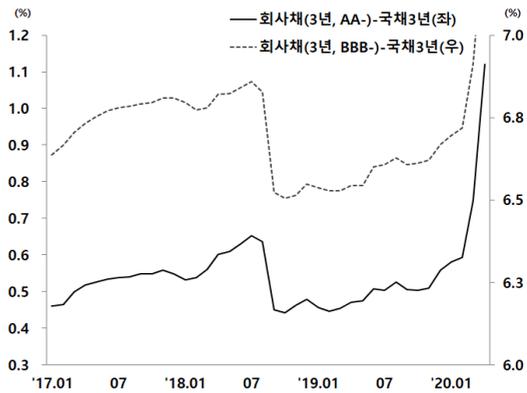
-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 계획으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여 장단기 스프레드는 1월 초 26.5bp에서 4월 말 81.3bp까지 확대됨
- 또한 기업의 실적 하락 등 펀더멘탈 악화와 신용평가사들의 기업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이어져 4월 신용스프레드(회사채 AA-국채 3년물)는 112bp까지 확대됨

▶ **그림 I-7 장단기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 **그림 I-8 신용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하반기 미국 국채(10년)금리는 0.84%로, 우리나라 국채(10년)와 국채(3년)의 금리는 각각 1.37%, 0.90%로 1~4월 평균 금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표 I-5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3년)금리	
1~4월	하반기	1~4월	하반기	1~4월	하반기
1.20	0.84	1.55	1.37	1.19	0.90

주: 2020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값으로, 예측 시점은 5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나. 환율**

☐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에 따른 외화 유동성 우려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한·미 통화스왑 등 국내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안정을 되찾으며 1,2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함

- 원/달러 환율은 전 세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3월 1,285원까지 상승하였으나 4월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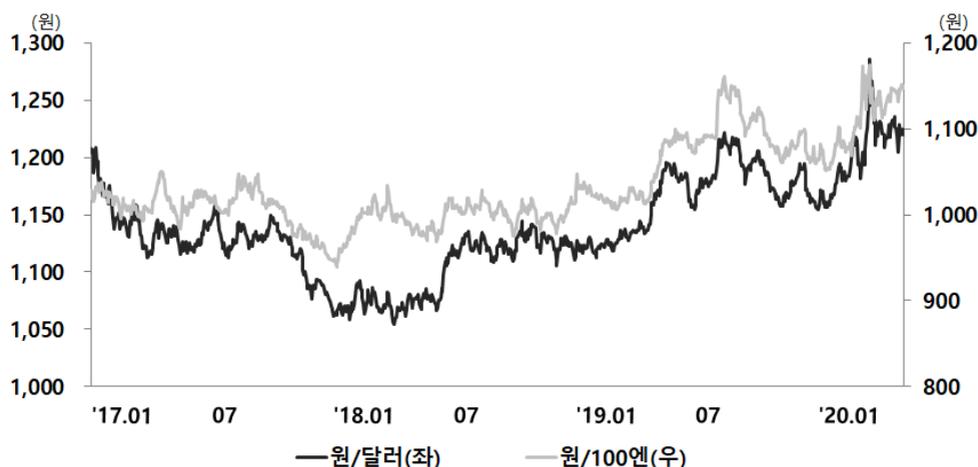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와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며 1,200원대 초반으로 안정을 되찾음

- 또한 3월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과 4월 미 연준의 FIMA 레포기구<sup>5)</sup> 설치 등으로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이 완화됨<sup>6)</sup>

■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쿄올림픽 연기, 경제전망 악화 등의 약세 압력으로 4월 평균 100엔당 1,135원을 기록함

- 원/엔 환율은 3월 말 100엔당 1,174원까지 상승하며,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3월 도쿄올림픽 연기, 4월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sup>7)</sup> 연장으로 인한 경제전망 악화 등 약세 압력을 받음
  - 일본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긴급사태 연장으로 인해 실질 국내 총생산이 23.1조 엔(GDP 대비 8.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sup>8)</sup>

▶ **그림 I-9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5) FIMA 레포 기구(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Repo Facility)는 레포 스와프를 담당한 임시조직으로 미 연준 산하의 뉴욕연방은행에 계좌(FIMA 계좌)를 가진 해외 중앙은행 또는 국제통화기구가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준으로부터 달러화 현금을 빌려갈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임(연합인포맥스)

6)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0. 4. 24), 「외환: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9호

7)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 열도 각지에 외출 자제 요청과 유흥시설 등에 대한 휴업 요청 및 지시 등 긴급사태를 선언함

8) 아사히신문(2020. 4. 30), “緊急事態宣言1カ月延長、損失23兆円の試算も”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0년 하반기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이 1~4월 평균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실물경제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경제 재개와 코로나19 집중 발병 지역들의 봉쇄 완화 및 치료제 개발 기대로 하반기에 소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됨
-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강제 요인과 일본의 경제전망 악화 등의 약세 요인이 혼재되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표 I-6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1~4월	하반기	1~4월	하반기	1~4월	하반기
Standard Chartered	1,219	1,200	108.6	100.0	1.10	1.15
JP Morgan Chase		1,220		108.5		1.07
SCB Securities		1,200		107.0		1.11
BNP Paribas		1,223		101.0		1.16
Morgan Stanley		1,160		101.5		1.17

주: 2020년 하반기에 대한 환율 전망으로, 예측 시점은 5월 초 기준임  
 자료: Bloomberg

## 다.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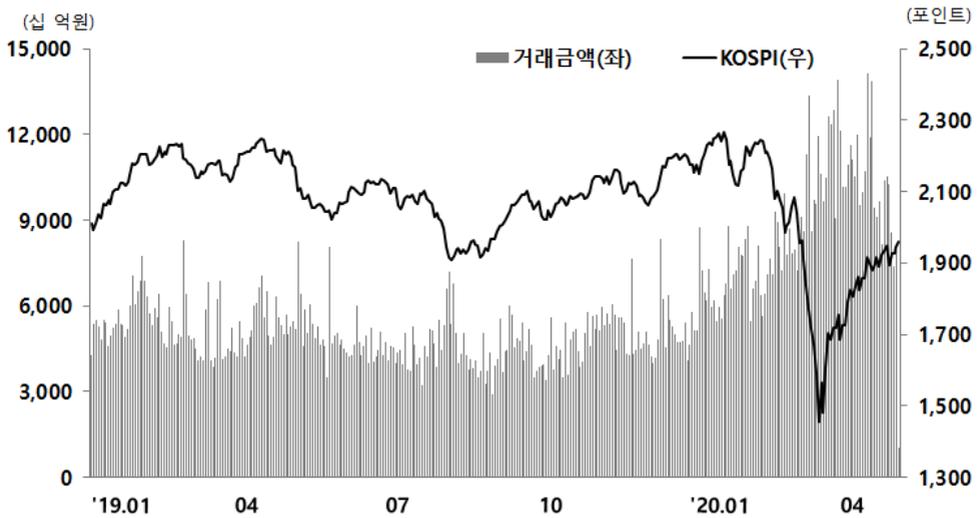
■ 코스피(KOSPI)는 코로나19 확산 및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3월에 1,400선까지 하락하였으나 주요국의 과감한 통화·재정정책으로 주요국 증시와 함께 반등함

-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 이후 주요국의 주식시장은 투자심리 불안과 글로벌 금융시장 침체로 이어졌으며,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5% 하락하여 2009년 이후 10년 만에 1,500선이 붕괴됨
- 주요국의 과감한 통화·재정정책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 등으로 코스피는 3월 하순부터 주요국 증시와 함께 큰 폭으로 상승함

▣ 풍부한 유동성과 코로나19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5월까지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산재한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하반기 주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이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중 갈등 심화, 유로존 재정위기, 신흥국 외환위기, 백신 개발 실패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주가 변동이 확대될 수 있음

▶ **그림 I-10**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II 보험시장

### 1. 경영환경에 대한 주요 가정

- 2020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 경영환경에 대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하반기 코로나19가 5월과 유사한 수준의 안정화된 상태로 생활방역 수준을 유지하여 대면영업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음
  - 둘째, 2020년 경제성장률은 0%, 가계경제는 고용 및 소득 악화로 인해 하반기에 보다 위축될 것으로 가정함
    - 가계의 보험가입 여력이 약화되고 해지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셋째, 하반기 KOSPI는 1,900~2,200 범위에서 등락함
  - 넷째, 하반기 국채(10년)금리는 1.4% 수준을 유지함

### 2. 보험산업 총괄

-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sup>9)</sup>는 2020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산업의 경우, 2020년에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가 전망됨
    -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대면채널 의존도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 변액보험은 상반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도 여전히 잠재적인 주식시장 위험요인이 남아 있어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손해보험 산업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2020년 5.2% 성장이 전망됨
    -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보험도

<sup>9)</sup> 퇴직연금을 제외한 수입(원수)보험료 기준임

연초 보험료 인상으로 증가가 전망됨

- 그러나 여전히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등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실적 부진이 예상됨

▶ 표 II-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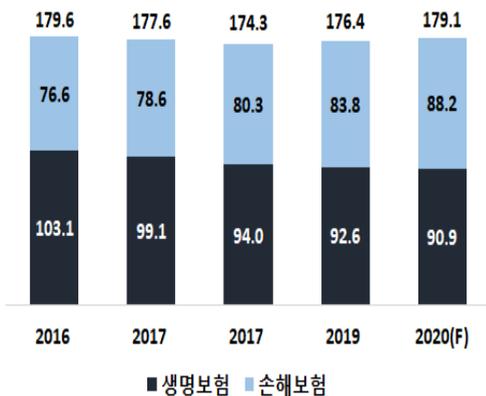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구분	2018		2019		2020(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94.0	-5.1	92.6	-1.4	90.9	-1.8
손해보험	80.3	2.2	83.8	4.4	88.2	5.2
<b>보험산업 합계</b>	<b>174.3</b>	<b>-1.9</b>	<b>176.4</b>	<b>1.2</b>	<b>179.1</b>	<b>1.5</b>
(퇴직연금 포함)	(201.9)	(-0.2)	(212.8)	(5.4)	(218.2)	(2.5)

-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퇴직연금을 제외한 수입(원수)보험료 기준임

▶ 그림 II-1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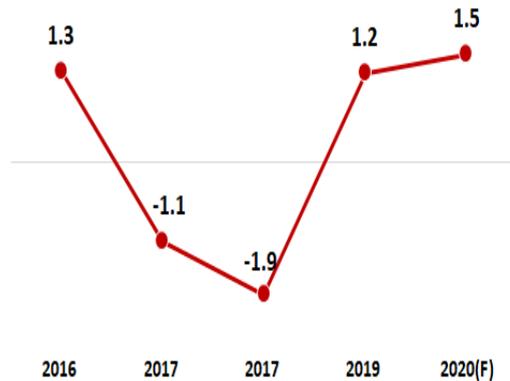
(단위: 조 원)



-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퇴직연금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그림 II-2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퇴직연금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3. 생명보험

#### 가. 수입보험료 개요

-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은 확대되었으나, 저축성보험의 실적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1.4% 감소함
  -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보험 및 중저가형 건강보험 실적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함
  - 일반저축성보험은 그동안 지속된 공시이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함
  - 변액저축성보험은 하반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함
- 2020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가 예상됨
  - 보장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와 종신보험 시장 정체 등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은 저금리와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부담 등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가 전망됨
  - 변액저축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8.2% 감소가 전망됨

▶ 표 II-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 <sup>2)</sup>	417,592	3.6	427,858	2.5	444,468	3.9	455,724	2.5
저축성 <sup>3)</sup>	565,430	-8.9	504,233	-10.8	474,110	-6.0	445,791	-6.0
일반저축성	387,903	-12.4	335,669	-13.5	316,422	-5.7	301,032	-4.9
변액저축성	177,526	-0.1	168,563	-5.0	157,688	-6.5	144,760	-8.2
기타 <sup>4)</sup>	7,649	0.4	7,616	-0.4	7,659	0.6	7,691	0.4
<b>생명보험 합계</b>	<b>990,671</b>	<b>-3.9</b>	<b>939,706</b>	<b>-5.1</b>	<b>926,237</b>	<b>-1.4</b>	<b>909,207</b>	<b>-1.8</b>
퇴직연금	149,064	-10.9	168,725	13.2	246,387	46.0	266,975	8.4
(퇴직연금 포함)	1,139,735	-4.9	1,108,431	-2.7	1,172,624	5.8	1,176,182	0.3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3) 저축성보험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을 포함함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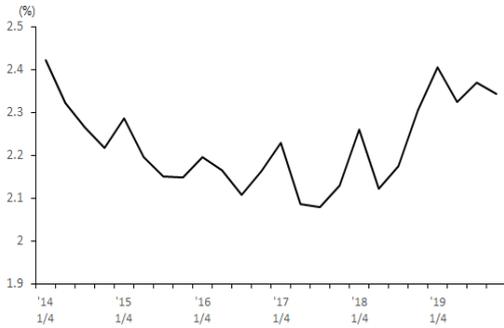
## 나. 보장성보험<sup>10)</sup>

- 2019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종신보험과 중저가형 건강보험 실적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함
  - 생명보험회사들은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에 대비하여 변액종신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함
  - 중저가형 건강보험은 고령화 심화와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 확대로 수요 측면의 니즈가 존재함
  
- 2020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상품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계속됨
    - 특히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4월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이전에 가입하려는 신규 수요가 증가함
  - 그러나 주요 보장성보험 상품인 종신보험이 시장 정체로 신규 수요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대면채널 영업환경도 악화됨에 따라 전체 보장성보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임
    - 기대여명의 상승,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종신보험 상품의 수요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인 대면채널 영업규제 완화<sup>11)</sup>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대면채널 의존도가 절대적인 종신보험의 특성상 신규 판매 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건강보험은 고령화 심화 및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증진형보험 등의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요율경쟁 심화와 저렴한 보험료로 인해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임
  - 한편, 경기 둔화 및 가계부채 확대 등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해지)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10)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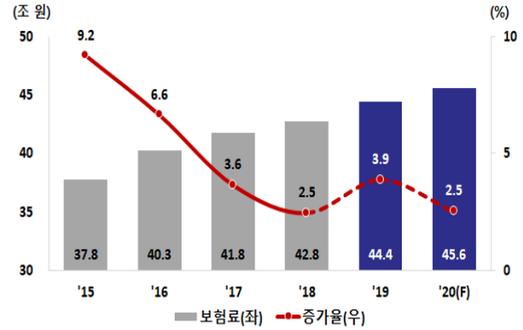
11)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대면채널 영업활동 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화를 통한 설명과 녹취를 허용하여 대면판매 원칙을 완화함

▶ **그림 II-3** 보장성보험 해지율 추이(분기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그림 II-4**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다. 일반저축성보험<sup>12)</sup>

■ 2019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지속된 저금리로 인한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함

- 저금리 지속과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의 소극적 판매 전략이 지속되어 왔음
  - IFRS 17이 적용되면, 저축성보험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자본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음<sup>13)</sup>
- 다만, 노후소득보장 수요 확대 등으로 초회보험료가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체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세를 지속함

■ 2020년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제도 변화에 대비한 소극적인 마케팅 전략, 저금리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환경 악화로 전년 대비 4.9% 감소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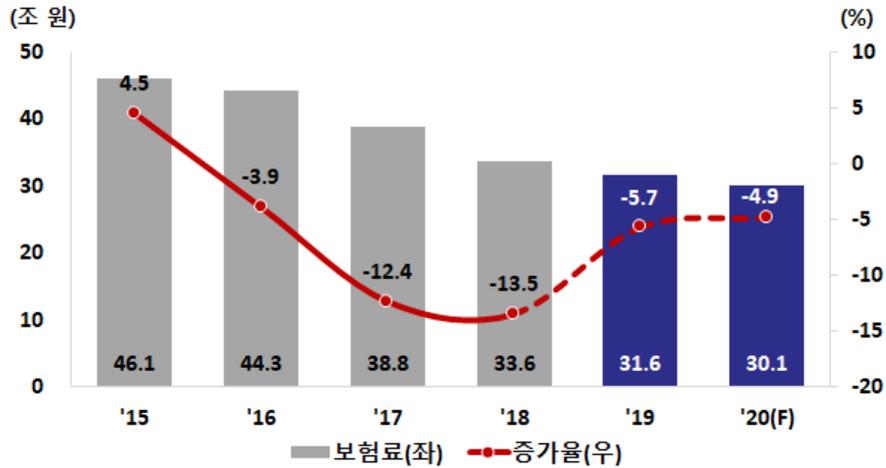
- 회계제도 및 자본규제 변화 시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저축성보험의 신규 판매 부담은 여전히 존재함
- 고령화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기본적 수요는 존재하나,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보증이율 하락으로 저축성보험의 수요 확대가 제한적임
- 다만, 연초에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안전성이 높은 저축성 보험의 일시납 신계약 실적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12)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을 포함함

13) 김세중·김유미(2019. 6. 10), 「연금보험시장 부진의 원인과 과제」, 『KIRI Report』를 참조함

-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계의 저축 여력이 약화되고, 영업 활동의 제약도 유지되어 저축성보험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그림 II-5**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일반저축성보험에는 변액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일반연금, 개인연금, 생사혼합보험 등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라. 변액저축성보험<sup>14)</sup>

■ 2019년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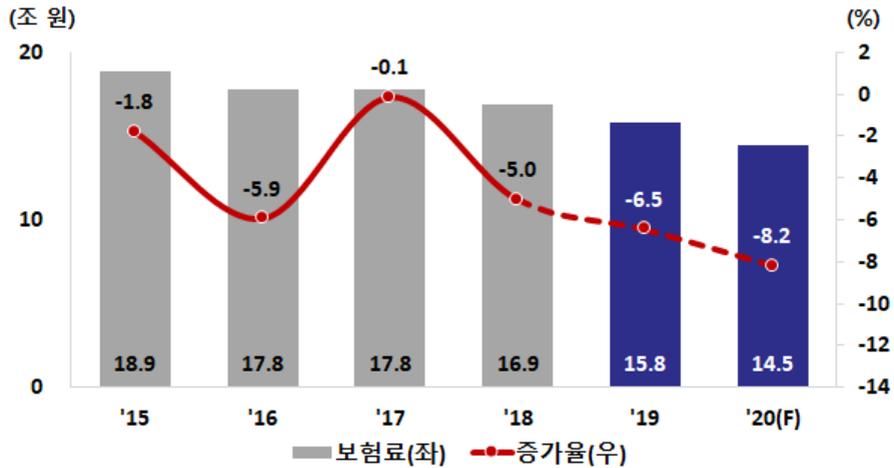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들은 제도 변화를 앞두고 다양한 보증옵션을 부가한 신상품 개발과 함께 변액저축성보험 마케팅 강화를 추진하였음
- 그러나 2018년 하반기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변액저축성보험 신규 판매도 크게 감소함
- 2019년에는 주가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초회보험료는 2018년에 비해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해지 증가 등으로 전체 수입보험료는 여전히 감소세를 나타냄

14)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 2020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높은 주식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전년 대비 8.2% 감소가 전망됨

- 2020년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판매 환경이 악화됨
- 하반기에도 미·중 갈등 심화, 유로존 재정위기 가능성 등 여러 잠재 위험 요인들로 인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게 유지되어 변액저축성보험의 판매 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림 II-6**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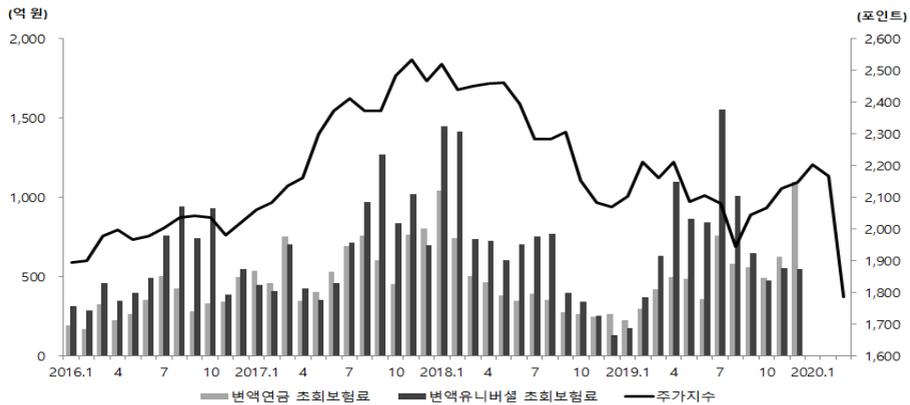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변액저축성보험에는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Box 1** ▶ 주가와 변액저축성보험

■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주가의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함

- 2018년 주가 하락세는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감소로 이어졌으며, 2019년 들어 주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변액저축성보험 신규 가입 수요가 소폭 증가함

▶ **Box 1 그림 1**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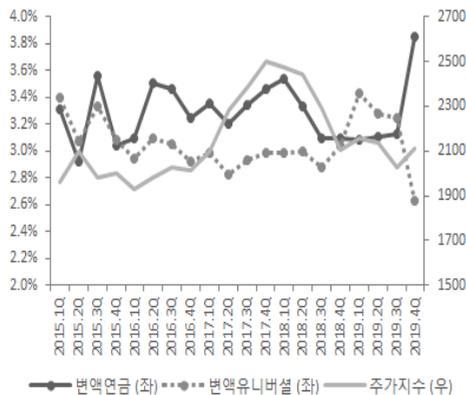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거래소

■ 2019년 들어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의 해지율이 2018년 하반기에 비해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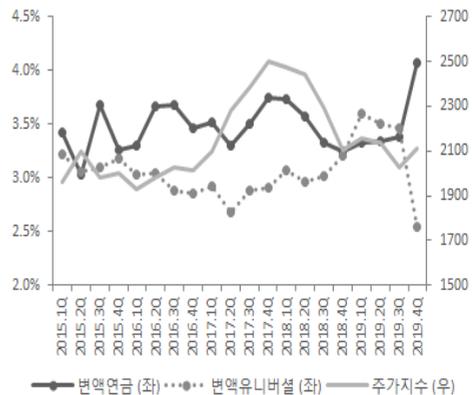
- 다만, 2019년 말 변액연금 해지율이 크게 상승한 반면 변액유니버설의 해지율은 크게 하락함

▶ **Box 1 그림 2** 변액저축성보험 해지율(건수) 및 주가지수(분기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한국거래소

▶ **Box 1 그림 3** 변액저축성보험 해지율(금액) 및 주가지수(분기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한국거래소

## 4. 손해보험

### 가. 손해보험 개요

- 2019년 손해보험<sup>15)</sup>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4.4%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은 장기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장기 상해·질병보험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어 5.0% 증가함
  - 개인연금은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6.4% 감소함
  - 자동차보험은 2019년 상반기 두 차례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함
  - 일반손해보험은 경기 둔화 등으로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이 부진한 실적이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 3.9% 증가에 그침
  
- 2020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이 고르게 성장하여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가 전망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7.2% 감소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연초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가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으로 4.5% 증가할 것으로 보임

<sup>15)</sup> 장기손해보험, 연금부문(개인연금,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표 II-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7		2018		2019		2020(F) <sup>1)</sup>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 손해 보험	합계	490,880	2.8	505,736	3.0	530,989	5.0	557,143	4.9
	상해·질병	296,606	9.2	326,348	10.0	361,902	10.9	394,234	8.9
	저축성	63,263	-23.3	45,071	-28.8	34,394	-23.7	26,932	-21.7
	운전자	34,893	13.4	38,009	8.9	41,063	8.0	44,995	9.6
	기타 <sup>2)</sup>	96,117	3.4	96,308	0.2	93,629	-2.8	90,981	-2.8
개인연금	37,007	-4.5	35,163	-5.0	32,912	-6.4	30,530	-7.2	
자동차	168,573	2.8	167,202	-0.8	175,677	5.1	191,287	8.9	
일반 손해 보험	합계	89,117	4.8	94,769	6.3	98,504	3.9	102,972	4.5
	화재	2,965	-1.5	2,753	-7.2	2,719	-1.2	2,697	-0.8
	해상	6,437	5.9	5,950	-7.6	5,998	0.8	6,173	2.9
	보증	17,435	9.6	19,541	12.1	19,336	-1.0	19,857	2.7
	특종 <sup>3)</sup>	62,279	3.7	66,526	6.8	70,451	5.9	74,246	5.4
<b>손해보험 합계</b>	<b>785,577</b>	<b>2.6</b>	<b>802,870</b>	<b>2.2</b>	<b>838,082</b>	<b>4.4</b>	<b>881,932</b>	<b>5.2</b>	
퇴직연금 <sup>4)</sup>	97,757	23.1	107,777	10.2	117,781	9.3	124,221	5.5	
(퇴직연금 포함)	883,334	4.5	910,647	3.1	955,864	5.0	1,006,153	5.3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기타에는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3) 특종보험(기술, 책임, 상해, 종합, 기타 특종, 권원보험 등)에 해외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4) 퇴직연금에는 퇴직보험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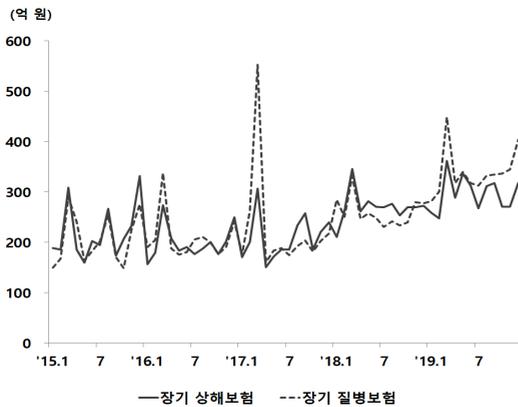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장기손해보험

■ 2019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5.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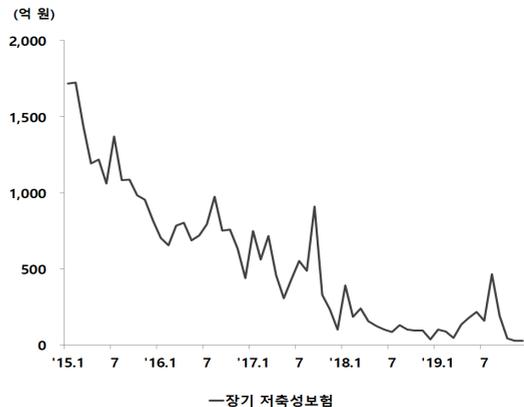
- 장기 상해·질병보험은 GA 중심의 판매 경쟁 확대 등으로 신규 판매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 장기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하락과 제도 변화에 대비한 판매유인 저하 등으로 초회보험료 감소세를 지속함

▶ **그림 II-7** 장기 상해·질병보험 초회보험료(월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그림 II-8** 장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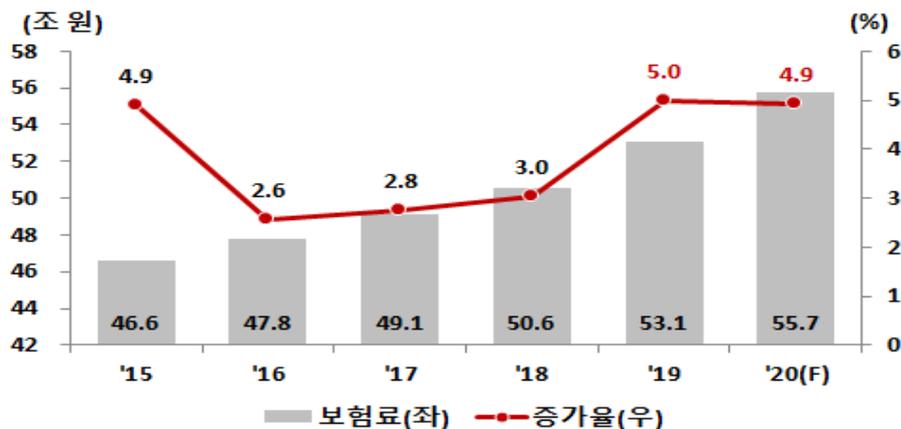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0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고, 장기 저축성보험 감소세는 지속되어 전년 대비 4.9% 증가가 전망됨

- 장기 상해·질병보험은 GA를 중심으로 한 판매경쟁이 소폭 완화되고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영업 환경도 악화되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경우 다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간편심사보험 확대,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보험료 조정 등 보험료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함
  - 한편,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률, 실손의료보험 손해를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은 성장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장기 저축성보험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인하<sup>16)</sup>되는 등 초저금리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감소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 제도 변화를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인 저축성보험 확대 전략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저금리도 심화됨에 따라 신규 판매 확대의 어려움이 가중됨
- 장기 운전자보험은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법률<sup>17)</sup>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담보의 확대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그림 II-9**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다. 개인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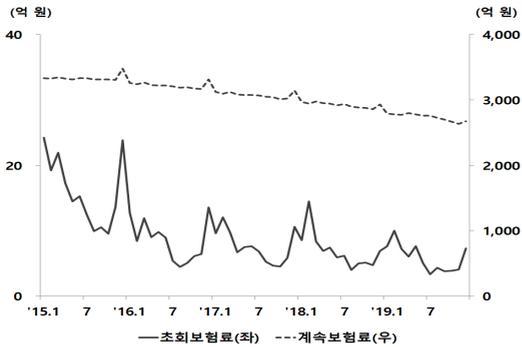
- 2020년 개인연금은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률 개선이 어렵고 향후 세제혜택 확대 여부도 불투명해 신규 판매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7.2%의 원수보험료 감소가 전망됨
  - 2019년 개인연금<sup>18)</sup> 원수보험료는 저금리 장기화와 세제혜택 약화 등으로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전년 대비 6.4% 감소함

1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5%로 0.25%p 인하함

17) 20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발생 시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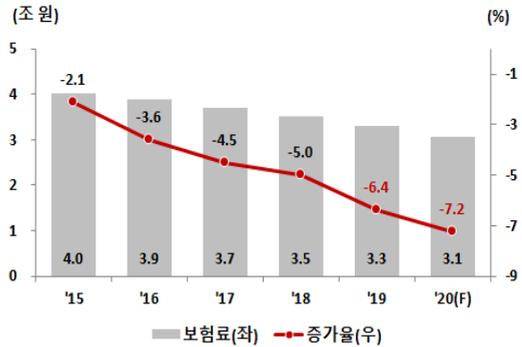
18)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상품을 연금저축이라 하며,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임

▶ **그림 II-10** 개인연금 초회 및 계속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그림 II-11**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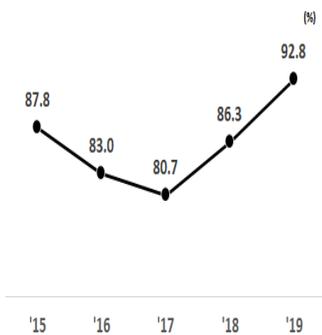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라. 자동차보험

▣ 2019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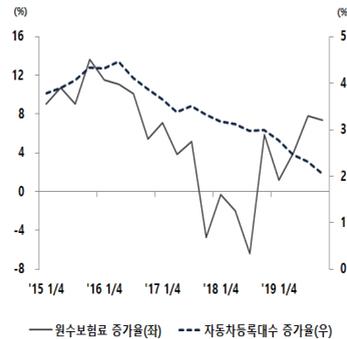
- 2019년 상반기 지속된 자동차보험 적자 누적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두 차례 인상됨  
- 2019년 1월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3~4% 조정되었으며, 2019년 6월에는 추가로 1~2% 조정됨
-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2019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는 계속됨
- 한편, 2019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추세가 계속되었으며, 인터넷, 모바일 이용 확산 등에 따른 온라인보험 판매 증가세도 이어짐

▶ **그림 II-12** 자동차보험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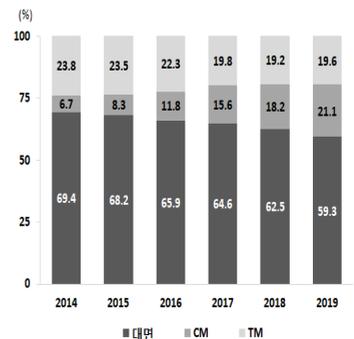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 **그림 II-13**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등록대수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국토교통부

▶ **그림 II-14** 채널별 자동차보험 판매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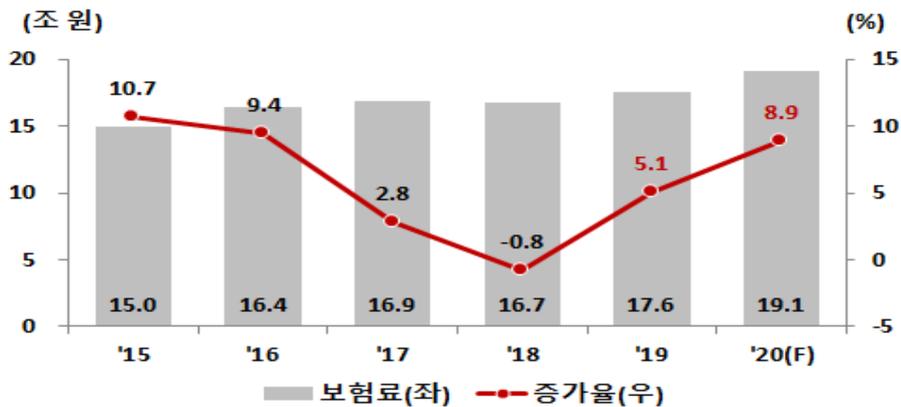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0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연초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8.9% 증가가 전망됨

- 2019년 요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고, 정비요금 증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일용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 압력도 지속됨에 따라 2020년 2월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됨  
- 전체 자동차보험료 조정율은 3.5%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로 향후 추가적인 자동차보험 요율 조정 여부는 불투명함
- 다만,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이 늘어나 자동차보험의 가격 민감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림 II-1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마. 일반손해보험

■ 2019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의 실적이 둔화되면서 전체 3.9% 증가에 그침

- 화재보험은 건설경기 부진, 손해율 안정에 따른 요율 인하 등으로 1.2% 감소함
- 해상보험은 물동량 소폭 회복 등으로 적하 및 운송보험 증가세가 나타나 전년 대비 0.8% 증가함
- 보증보험은 제도 변화 등으로 2018년 증가한 중금리대출보증보험<sup>19)</sup>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sup>20)</sup>의 실적이 둔화되면서 전년 대비 1.0% 감소함

1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5. 30), “'18년 중금리 대출 실적 및 제도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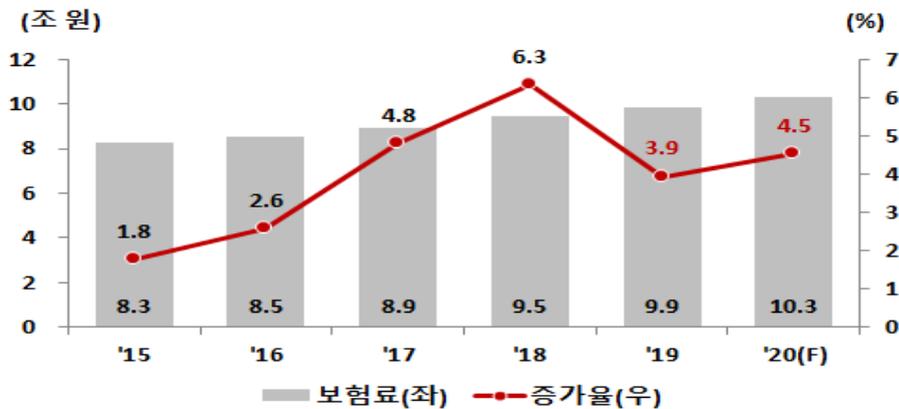
20) 2017년 6월 20일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상품가입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보험가입이 용이해짐

- 특종보험은 가입 의무화 확대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증가세 등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함

■ 2020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가 예상되나,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은 건설경기 둔화, 요율 조정, 다른 보험종목으로의 수요 분산<sup>21)</sup>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가 전망됨
- 해상보험은 코로나19로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해운업 경기 불황 심화 등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보증보험은 건설경기 둔화 및 기업구조조정의 여파와 주택담보대출, 전세금 보장, 자동차할부 등과 관련한 신용보증보험 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가 전망됨
- 특종보험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대부분 종목들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5.4% 증가가 전망됨
  -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사이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보험 강화로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확대될 것임
  -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자보험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성보험의 실적 부진이 예상됨

▶ 그림 II-1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1) 다수 보장을 제공하는 장기재물보험과 특종보험의 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화재 위험을 보장받는 경우가 있음

## 5.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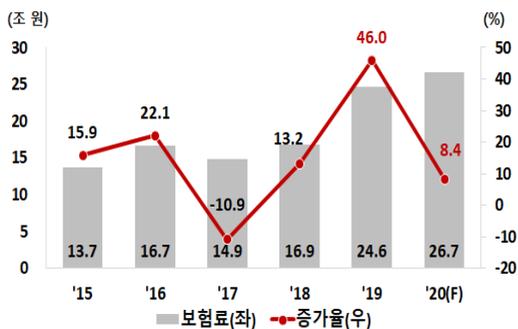
■ 2019년 퇴직연금은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확대, 일부 보험회사의 마케팅 강화 등으로 생명보험은 전년 대비 46.0%, 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9.3% 증가함

- DB형 사외적립비율이 2019년부터 80%에서 90%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됨
-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퇴직연금 사업 역량 강화 노력과 신규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2020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장 확대 및 일부 회사의 퇴직연금 역량 강화 전략 등으로 생명보험은 전년 대비 8.4%, 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5.5% 증가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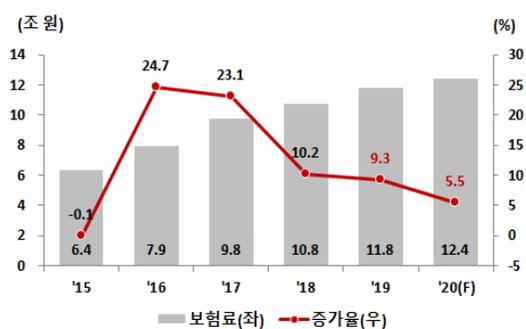
- IRP(개인형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sup>22)</sup> 등이 수입보험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수익률 개선, 수수료 개편 등과 같은 DC형 퇴직연금 사업 역량 강화 노력을 취하고 있음
- 다만, 신지급여력제도(K-ICS) 대비 적립금에 대한 요구자본 부담 확대와 타 금융권과의 실적배당형 상품 경쟁심화는 수입보험료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앞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신용위험액과 시장위험액을 요구자본에 단계적으로 반영함<sup>23)</sup>

▶ **그림 II-17**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그림 II-18** 손해보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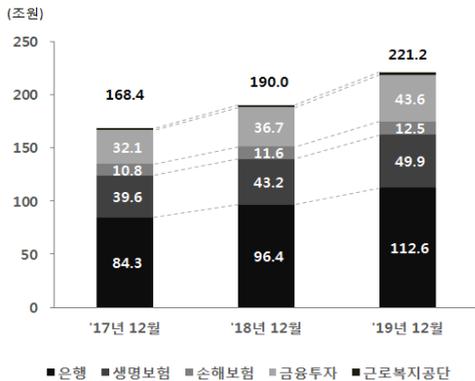
22) 2020년 1월부터 50세 이상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됨

23) 기존 35%에서 2019년 70%, 2020년 100% 반영으로 조정됨

Box 2 퇴직연금 적립금 비교

- 2019년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면, 은행이 112.6조 원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생명보험 49.9조 원, 금융투자 43.6조 원, 손해보험 12.5조 원 순임
- 2019년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의 경우, 손해보험 산업이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냄
  - 2019년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은 금융투자(18.8%), 은행(16.8%), 생명보험(15.6%), 손해보험(7.2%) 순임
  - 특히, 2019년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은 증가 폭이 컸던 반면, 손해보험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 폭을 유지함
    - 이는 일부 생명보험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퇴직연금 신규 판매 마케팅을 강화하여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Box 2 그림 1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자료: 금융감독원

Box 2 표 1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

구분	2017	2018	2019
은행	15.1	14.3	16.8
생명보험	9.9	9.1	15.6
손해보험	8.0	7.9	7.2
금융투자	20.9	14.3	18.8
<b>전체</b>	<b>14.6</b>	<b>12.8</b>	<b>16.4</b>

자료: 금융감독원

---

## 저자약력

### ■ 총괄

조영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youngcho@kiri.or.kr)

### ■ 경제·금융

김유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최예린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erinchoi@kiri.or.kr)

### ■ 보험산업

김세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최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 수석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김혜란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구원  
(E-mail : hrkim@kiri.or.kr)

김유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CEO Report 2020-02

---

##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32)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